

영아기 발달에 따른 한국 엄마의 신체접촉 양상의 변화

김 수 정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장 유 경
한솔교육문화원

성 현 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심 희 옥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본 연구는 영아기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발달적 변화와 지역간 차이 그리고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전국적인 규모로 3개월-3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엄마들을 3개월 단위로 80명씩 모집한 총 1120명이다. 변량분석결과, 엄마들은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사용하였다. 남부 지역이든 중부지역이든 거친 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양육적 차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어느 정도 유의미했다.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남부지역의 엄마들보다 더 많이 양육적 신체접촉을 사용했다. 그러나 두 지역에서 거친 신체접촉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접촉 유형에서 보면 마사지, 꼬집기, 찌르기, 흔들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등에서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지역간 유형에서의 차이를 보면, 마사지와 업기는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꼬집기는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사용했다.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서 엄마들은 아기가 어릴수록 안고 흔들어서 재웠으며, 율령이 증가할수록 젖이나, 우유를 물리거나, 등이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재웠다.

주요어: 신체접촉, 영아기, 양육적 신체접촉, 거친 신체접촉, 애착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해 왔다(Hertenstein & Campos, 2001; Stack, 2001; Greenough, 1990). 체적 발달을 포함하여 영아 삶의 여러 영역에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과제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음. 연구에 참여해주신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엄마와의 신체접촉은 어린 영아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신체 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의 신체접촉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특징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의 연구(Brazelton, 1990; Montagu, 1986)는 신체접촉이 초기 영아기 발달의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엄마와 영아 간 의사전달의 통로가 되는 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전달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종의 신생아들에 대한 엄마의 핥기(licking)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Montagu, 1986). 또 다른 형태의 신체접촉, 가령 안기, 안고 이동하기, 몸단장 해주기 등은 출생 후 계속된다.

신생아와 엄마의 신체 접촉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의 방향은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신체접촉하는 가를 검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Rubin(1963)에 의하면, 엄마들은 신생아를 다룰 때 특별한 형태의 순서로 신체접촉을 한다. 가령, 처음에는 아기의 손발을 그리고 몸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고 난 후 손바닥으로 신체접촉을 한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은 신생아에 대한 엄마의 접촉(contact) 효과를 검사하였다. 신체접촉은 엄마와 영아를 결속시킨다. 이런 결속은

한 방향으로의 애정적 연결이며, 출생 후 바로 또는 몇 일 내에 급속히 형성되는 것으로, 애착과는 분명 다르다(Toney, 1983). 신체적 접촉은 결속의 효과를 진전시키므로, 이후 영아의 발달과 부모-아동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연구의 방향은, 출생 후 성인이 제공하는 마사지에 대한 영아 반응을 연구하였다. Field(1998)에 의하면 신체접촉 치료법(touch therapies), 특히 마사지 치료법은 약의 최초의 형태로 B.C 1800 경부터 사용하였다. Reissland와 Burghart(1987)는 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마사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곳에서 여성들은 매일 자신의 영아를 마사지한다. 이런 마사지는 영아의 뼈 골격을 단단히 해주고 운동과 협응 능력을 촉진시키며 공포심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마사지의 효과가 사회 정서적 발달과 부모-영아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지만, 분명히 신생아의 신체접촉은 다양한 역할을 하므로 신체접촉이라는 감각은 부모와 영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연구의 초점은 초기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신체접촉은 엄마와의 상호작용과 놀이 장면에서 엄마의 음성과 시각적 표현과 더불어 나타난다. 엄마의 신체접촉은 짧은 상호작용 동안에 33-61% 정도 나타난다.

Konner(1976)에 의하면 Kalahari 사막에서 사냥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Kung족의 영아는 생후 3-6개월 동안 시간의 75%정도를 누군가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자이레에서 살고있는 foragers(약탈자) 공동체인 Efe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과의 신체접촉으로 보

낸다. 그들의 안기 형태가 온도 조절에 대한 영아의 성취와 성장을 촉진시킨다.

Efe족의 자연스런 상황에 대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엄마와 영아간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얼마나 일어나는 가를 검사했다(Tronick, 1989). 연구(Kaye & Fogel, 1980)에 의하면 3, 6, 9개월 된 영아와 엄마와의 상호작용중 시간의 68%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났다.

Weinberg(1994)는 6개월 된 영아와 엄마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신체접촉의 유형(쓰다듬기, 울동적 접촉, 안기, 간질이기, 뽀뽀하기, 찌르기/꼬집기)과 양을 조사하였다. 엄마들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아기를 쓰다듬거나, 안거나 울동적인 신체접촉 했으나, 간질이기와 뽀뽀하기는 자주 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행동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일 때 나타난다. 찌르기와 꼬집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신체접촉 유형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면, 신체접촉의 각각의 유형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Stack & LePage, 1996).

초기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촉각적 자극이 시각과 음성적 성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Stack 와 Muir(1990)는 3, 6, 9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동안 엄마 신체접촉을 분리시키도록 고안된 SF(Still-Face)절차를 사용했다.

결과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신체접촉이 없는 SF에서 보다 신체접촉이 있는 SF에서 영아는 더 많이 웃고 인상을 덜 찌푸렸다. 이는 엄마의 신체접촉이 영아에게서 정적 애정과 주의를 유발시킴으로써 SF효과를 조절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 의

하면(Stack & Muir, 1992) 낯선 여성에게서 나오는 촉각적 자극이 SF효과를 조절했을 뿐 아니라 영아의 정적 정서를 증가시켰다.

Still-Face절차(Tronick, Als, Adamson, Wise, & Brazelton, 1978)는 대면(face to face) 상호작용을 변경한 것으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이다. 대면 상호작용은 엄마와 영아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영아의 사회적 의사전달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일차적 수단 중의 하나이다(Kaye & Fogel, 1980).

Still-Face절차는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90-120초)에서 엄마는 안면 표정, 음성, 그리고 신체접촉을 사용해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한다(정상적 상호작용단계). 2단계(90-120초)에서 엄마는 중립적이고, 무반응적인 무표정한 얼굴(still face)을 보이면서, 음성적 자극이나, 촉각적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다(SF 단계). 3단계(90-120초)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Still-Face는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소리도 내지 않고 영아를 만지지도 않을 때,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절차로 어린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알아보는 절차이다.

정상적인 단계와 비교했을 때, SF단계에서 영아 응시나 미소 반응이 감소하며, 중립적 반응과 음성적 반응이 증가된다(Ellsworth, Muir, & Hains, 1993; Stack & Muir, 1990).

LePage(1998)는 신체접촉을 포함시킨 SF의 변경된 방법을 사용하여 촉각적 유관성을 지각할 영아의 능력을 조사하였다. 유관조건의 영아는 실험자의 중립적 얼굴을 응시할 때 표준화된 촉각적 자극을 강화 받은 반면, 비유관조건의 영아는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같은 촉각적 자극을 강화 받았다. 결과에 의하면 유관 조건의 모든 영아는 유관성을 학습하여 비 유관조건의 영아에 비해 실험자의 얼굴을 더 응시했다. 이는 4-7개월 된 영아가 성인-영아 상호작용에서 촉각적 감각 양식을 통해, 제시된 유관관계를 지각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는 신체접촉에 민감하고 신체접촉에 의해 강화 받는다.

이전까지는 신체접촉의 기능과 적합성이 돌보는 사람의 신체접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돌보는 이에 대한 영아 반응에서 나온 증거 등을 근거하여 추론되었다. 또 신체접촉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일지라도 신체접촉이 지속되는 시간이나 신체접촉의 강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즉 신체접촉의 질적인 측면이나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특정한 환경에서 어떻게 더 사용될 수 있는 가는 설명되지 않았다. 분명히 신체접촉의 유형과 적용 방식이 다른 의미를 갖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Stack와 LePage(1996) 연구에서는 엄마를 5.5개월 된 영아와 대면 상호작용을 시킨 후에 3개의 SF 상황에 참여시켰다(정상적 신체접촉 상황, 미소를 극대화시키는 신체접촉 상황, 신체의 한 영역을 구속하는 신체접촉 상황). 통제집단의 엄마들은 자녀와 4단계의 정상적 상호작용을 하게 했다.

결과에 의하면 자연스런 상호작용 장면과 모든 SF 단계는 의미 있게 달랐고, 각 SF 단계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령, 미소를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받은 엄마는 더 활동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고(간질이거나, 들어올린다), 강도와 속도가 세고 빨랐다. 단지 신체

의 한 부분을 신체접촉 하도록 했을 때 쓰다듬는 신체접촉 유형이 증가되고 혼드는 유형은 감소되었다.

이처럼 지시를 받은 엄마는 짧은 기간에도 신체접촉을 변화시킨다. 이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전달 되어 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순한 신체접촉의 지속은 성인행동을 특징짓는 충분한 지표가 되지 못하며,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신체접촉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tack et al., 2001).

심리 사회적 발달의 토대로써 촉각적 경험

영아 환경의 세부 특성은 신경 행동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촉각적 경험은 초기의 영아 발달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체접촉과 연합된 수유기와 신경통로는 영아기에 발달해야 될 첫 번째 요인이며, 아기의 최초의 자극은 돌봄에서 받은 신체접촉을 통해서 형성된다(Turkewitz & Kenny, 1982; Myslivecek, 1991). 결과적으로 신체접촉은 이 시기 뇌의 하드웨어 발달에 중추적이다. 동물연구에서 나온 증거는 초기의 촉각적 경험은 뇌의 대뇌피질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 형태와 수(number)에 영향을 줄 수 있다(Greenough, 1990; Nudo et al., 1996). 이처럼 신생아의 뇌는 엄마와의 신체접촉으로부터 오는 감각과 운동 자극을 통해 발달한다.

신체접촉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애착연구가들은 영아의 안전감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반응적이고 이용가능한 환경의 증추적 특성으로써 부모-영아의 신체적 접촉 특장을 간주했다(Bowlby, 1973). 연구에 의하면 엄마와 친밀한 신체접촉은 영아가 고통이나 불편함을 대처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다른 감각양식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Grossman et al., 1985).

엄마의 정서는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의사전달 되어진다. 이처럼 감각체계로써 그리고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써 신체접촉은 부모와 영아간의 관계에 중요하며, 이것이 의사전달 의미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아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엄마는 생의 초기부터 영아를 가슴에 안고 달래어 잠재우기도 하고, 달래서 아기의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며, 껴안음으로 포근함과 애정을 증가시키기도 하므로 신체접촉은 생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전의 상호작용 연구는 엄마-영아간 행동에 대한 민감성에 초점을 두고, 행동 규제(regulation)에서 신체접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촉 행동은 모-영아간 정서적 의사전달의 통합적 특성이 되며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접촉은 긍정적인 안전 애착과 관련됨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체접촉 양과 특성이 엄마-영아 관계에 중요하다(Montagu, 1986; Stack & Muir, 1992).

Landau(1989)는 뽀뽀하기(kissing), 애정을 갖고 꼭 껴안기(hugging), 토닥토닥 두들겨 주기(patting) 등의 양육적 신체접촉과 영아기 애착 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러나 엄마의 애정적인 행동과 애착간의 관계는 복잡하다. 연구(Isabella, Belsky & von Eye, 1989)에 의하면 동시 발생적이고 상호간 작용에 주된 기

능을 하는, 엄마의 민감성이 애착의 최적의 형태와 연관되며, 엄마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신체적 근접성과 신체적 접촉 행동과 관련되어 진다.

엄마의 애정적인 행동(가령, 양육적 신체접촉 등)이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양육변인인 엄마 민감성, 안정성, 양육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신체접촉의 특성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신체접촉 양과 애정적이고, 부드러운 신체접촉 대 거칠고 학대적인 신체접촉. 신체접촉의 양은 모성적 유용성의 지표로 정의된다. 안전 애착의 엄마는 불안 애착의 엄마보다 더 광범위한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애착과 신체접촉의 모성적 특징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Waters, Kondo-Ikemura, Posada & Richters, 1990).

신체 접촉이 애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증가된 신체접촉은 안전한 애착과 엄마의 증가된 반응성과 관련 있었다(Anisfeld, Casper, Nozyce & Chunningham, 1990). 이처럼 신체접촉의 빈도와 지속도 애착에 영향을 준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Weiss, Wilson, Seed, & Paul, 2001).

한편 신체접촉의 결핍이 공격성과 상관이 있음이 제기되었다(Field, 2003). 미국과 프랑스의 학령 전 아동의 비교 연구에서, 미국의 아동은 프랑스 아동보다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해 신체접촉을 덜 받았고, 더 공격적이었다(Field, 1999). 가령,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프랑스의 학령 전 아동들은 관찰 시간의 35%를, 미국의 학령 전 아동은 11% 정도를 신체접촉 받았다. 프랑스 아동은 놀이터에서 단지

관찰시간의 1% 만을, 미국의 아동은 관찰 시간의 29%를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제한된 신체접촉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언급되어 왔고, 이탈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서 언급되어 왔다.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신체접촉이 박탈당한 원숭이 자손에게서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린의 결핍을 보고되었다(Kraemer, 1985).

추가적 신체접촉을 제공함으로써 노에피네프린(Kuhn et al., 1991)과 세로토린(Ironson et al., 1996)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격적 행동은 높은 도파민의 수준에서 유발되며, 신체접촉 박탈 때문에 고갈된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린을 증가시킴으로써 억제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애착 대상에게 신체접촉을 거부당했을 때, 분노, 공격적 행동,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찰싹 때리는 것과 같은 정상적이 못한 행동 유형을 발달시켰다(Main and Stattman, 1981). 무딘 정서는 신체적으로 방치된 영아에서 보이는 주된 특징이며(Schore, 1998), 성장 불능인 아동은 엄마로부터 받는 신체접촉 유형이 적었고(특히 붙들기, 입맞춤, 귀여워서 애무하기), 엄마는 다가오는 아기의 신체적 접촉을 못하게 거부하며, 아기를 언어적으로 꾸짖었다(Polan and Ward, 1994). 게다가 신생아는 엄마와 신체접촉을 못할 때, 울음을 터뜨린다(Christensson et al., 1995).

그렇다고 신체접촉의 결핍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가령,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체접촉은 애착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불안-회피 애착은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을 주는 양육적 접근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Vondra et al., 1995). 따라서 ‘적절한 자극이 안전 애착과 관련된다.

신체접촉의 광범위한 사용이외에도 안전하게 애착한 영아의 엄마는 불안전 애착영아의 엄마보다 더 애정적이며 부드러운 신체접촉을 사용한다. 그들은 아기를 더욱 어루만져주고, 꼭 껴안아주며, 뽀뽀해주고, 조심스럽고 온화하게 아기를 보살핀다. 다른 연구들도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데, 부드럽고 애정적인 신체접촉은 안전 애착 영아의 엄마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Leyendecker et al., 1997; Network, 1997; O'Connor et al., 1992).

최근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오하게 영향을 주는 부모와 아동간 애정 어린 안락한 피부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Walsh, 1991). 부드럽고 온화한 붙잡기는 안전애착과 정서적 안전에 중추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Anisfeld et al., 1990; Katz et al., 1992).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받은 영아는 2세 때 더 적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졌다(Weiss et al., 2001).

불안전 애착 영아와 혼란된 애착 영아의 엄마들은 거부적이고, 험악하며 돌발적인 신체접촉을 한다(Van der Kolk & Fislser, 1994). 이런 신체접촉의 영향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되어왔다. 그들은 강도 높은 불안전 애착특성을 보인다(Van IJzendoorn et al., 1992). 따라서 거친 신체접촉은 적게, 양육적 신체접촉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안전 애착과 관련된다는 가설이 제안된다.

초기의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체벌(Straus and Gells, 1990)을 경험한 아동의 정신적 병적 상태가 날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많은 문헌들이 있다. 신체적 학대는 완전히 변형된 신경 정신의학적 증세, 특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가-파괴적 장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Kaufman, 1991; Green, 1998). 체별적 신체접촉은 실제로 신경 세포의 구조와 변연계의 신경 화학적 순환, 사회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는데 원인이 되는 체계 등을 변경시킨다(Schore, 1998).

Hertenstein과 Campos(2001)도 엄마의 신체접촉이 대상을 향한 영아의 도구적 행동을 조절해 줄 뿐 아니라 부적인 정서(가령, 불쾌감 등)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거친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가 집중적인 양육적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보다 안전 애착 점수가 의미있게 낮지 않았다. 연구(Weiss et al., 2000)에 의하면, 거친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는 적당하고 최소한의 양육적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보다 안전 애착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거친 접촉 사용과 양육적 접촉 사용 간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양육적 신체접촉이 사용되는 한 제한적인 거친 신체접촉의 사용은 안전에 대한 영아의 느낌을 붕괴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드럽고 애정적 신체접촉은 생득적으로 유익하다는 확증은 조심스런 주장이다. 만약 온화하고 애정적인 신체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순간에 사용된다면, 부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엄마의 민감성이 영아 애착에 미치는 양육적 또는 거친 신체접촉의 효과를 조절할 수도 있다(Weiss et al., 2000).

이처럼 신체접촉의 양이나 유형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문헌들을 통해 신체접촉이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신체접촉에서의 문화적 차이

문화가 다른 집단들은 다른 방식의 신체접촉을 사용한다. Kawakami, Takai- Kawakami와 Kanaya(1994)는 생후 1년 간 미국인 엄마와 일본인 엄마와의 영아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했는데, 미국인 엄마와 영아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고 자녀를 더 신체접촉 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스페인계 엄마와 영국계 엄마를 비교 연구한 결과, 두 집단의 엄마들은 자녀를 매일 신체접촉 한다고 보고했으나, 스페인 엄마가 더 많이 신체접촉과 애정 표현을 했다(엄마를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거나, 몸을 접촉하고, 꼭 안는 등). 그러나 두 집단 엄마들간 신체접촉의 양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ranco et al., 1996). 이는 애정과 신체접촉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지만, 신체접촉은 초기 상호작용의 통합적인 구성성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페루의 고원지대에 살고있는 엄마들은 높은 고도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주머니(캥거루의)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영아를 옷감과 담요로 꼭 감싼다(Tronick, Thomas, & Daltabuit, 1994).

인도의 뉴델리에서 엄마와 아빠의 안는 형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엄마가 더 아기를 안아주고, 안아주면서 젖을 주고 포근하게 해주며, 애정도 표현했으나 안기나 잡기의 신체접촉의 지속시간은 북미 가족보다 적었다(Roopnarine, Talukder, Jain, Joshi, & Srivastav, 1990).

Ashley Montagu에 의하면 신체접촉은 같은 문화권이나 같은 계층의 사람들 간에만 실행되는 친근한 행위이다(Field, 2003). 미국인 부

모들은 프랑스 부모보다 자녀를 덜 바라보고, 신체접촉을 덜했다. 미국인 아동은 부모와 같이 잘 놀지 않았으며, 프랑스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공격적이었다. 또래 상호작용 동안에 미국인 아동은 또래를 덜 접촉했으나, 또래의 장난감을 더 움켜 쥐고, 또래에 대해 더 공격적이며, 더 안달복달 했다(Field,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파리와 마이애미에 있는 맥도날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을 관찰하여, 또래 상호작용 동안 일어나는 신체접촉의 양과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은 프랑스 청소년들보다 또래를 쓰다듬고, 입맞춤하고,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덜 했다. 그들은 더 공격적인 언어와 신체적 행동을 보였다(Feild, 2003).

이런 차이의 어느 정도는 초기 신체접촉에 대한 노출에서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미국 아동은 더 활동적이고, 시끄럽게 더 지냈으며, 일본 아동들은 엄마로부터 경험한 여러 종류의 신체접촉 때문에 더 수동적이고 조용했다.

삶의 초기부터 받는 신체접촉의 유형에서 일본 영아의 경우는 조용하고 달래는 신체접촉을, 미국영아의 경우에는 더욱 돌발적이고, 자극적이며, 가볍게 두드리거나 꼭 찌르는 신체접촉을 더 받는데, 이런 경향이 아동의 이후 행동에서의 차이의 어느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Douglas, 1978). 가령, 일본인 아동들은 부모들과 함께 신체적 접촉을 한다. 엄마에 대한 아동의 이런 지속적인 의존성 때문에 아동은 독립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신체접촉을 자주 하는 문화권에서 성인의 공격성은 낮은 반면, 신체접촉이 제한적인 문

화권에서는 성인 공격이 높다(Prescott et al., 1976). Margaret Mead의 연구(1935)에 의하면 뉴기니아의 아랍페쉬족 영아는 항상 엄마에 의해 작은 그물 망에 운반되어지므로 엄마와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게 하며 필요할 때, 즉각적인 수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 사회에서 성인은 비공격적이며, 온화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같은 나라 내에서 문트그아족들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국민들로 그들의 영아는 엄마 신체와 접촉하지 않고 엄마의 이마로부터 매달린 바구니에 운반되어진다.

아프리카의 카라하라의 Kung족의 아기는 엄마와 계속적으로 피부 접촉을 한다. 그들은 엄마의 옆구리에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멜빵을 타고 다니며, 나이 든 아동들로부터 많은 보살핌이나 입맞춤을 받는다. 그리고 성장해서 매우 온순한 성인이 된다(Konner, M. J., 1976).

플로리다 대학의 심리학자 Sidney Jourard (1966)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두 사람이 하는 신체접촉 횟수를 기록했다. 런던에서 20번 신체접촉 하는 쌍은 한 명도 없었고, 플로리다에서는 두 쌍, 파리에서는 110쌍,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80쌍이 20번의 신체접촉을 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가령,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터키, 이집트, 등)은 신체접촉을 자주 하는 반면에, 북쪽 사회(가령, 홀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Field, 2003).

신체접촉은 문화마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접촉 빈도나 유형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가령, Kung족과 Efe족의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누군가와 신체접촉하고 있다. 미국의 엄마들은 프랑스 엄마들에 비해 자녀에게

하는 신체접촉의 양이 적다. 또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신체접촉을 자주 하는 반면,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자주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신체접촉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접촉 결여가 이후 발달에서 공격성과 관련되어짐이 앞에서 언급되었다(Field, 2003).

신체접촉 유형에서 문화적 차이를 보면, 일본의 엄마들은 조용하고 달래는 신체접촉을, 미국의 엄마들은 더욱 돌발적이고 자극적이며, 가볍게 두드리거나 꺾 찌르는 신체접촉을 더 한다. 이처럼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신체접촉의 양이나 유형에서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신체접촉이 초기 영아기의 사회적 경험의 토대로써 애착에 영향을 주며(Weiss et al, 2001), 이후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살펴보았다(Hertenstein & Campos, 2001; Stack & Muir, 1992; Montagu, 1986). 또한 이런 신체접촉이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0-3세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에게 하는 신체 접촉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체접촉 유형이 발달 별로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알아보고, 발달에 따라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신체접촉 유형을 탐색하여 양육현장에서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문화권에 따라 신체접촉을 많이 하기도, 적게 하기도 하며, 그런 정도가 이후 그 문화권의 사회적 행동(가령, 공격성 등)과도 연관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유독 지방적 특색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양육의 근원적 요소가 되는 신

체접촉이라는 보살핌에서의 지역 간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부지역(서울+경기+충청)과 남부지역(영남+호남)으로 나누어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신체접촉은 실제 양육 현장에서 아기를 보살필 때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아기를 재울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체접촉 기능에 대한 일차적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Hertenstein, 2002; Weiss, 1992) 연구자가 신체접촉의 유형을 알아보는 질문지와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를 재우는 방법들을 물어보는 질문지를 선택식과 개방식으로 구성하여 엄마들의 행동을 탐색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대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에서 표집한, 전국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3개월부터 36개월 된 영아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연령을 3개월 단위로 하여 모집한 엄마들은 총 1120명이었다(서울·경기 574명, 충청 112명, 영남 308명, 호남 126명). 영아의 남녀 비율은 1:1로 같았다.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모집되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출산 후 입원하고 있는 산모나 소아과에 온 엄마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전화를 통한 모집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연구 대상에 적합한 영아가 있는지를 묻고,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얻은 사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모집을 하기 위해 유아 전문 교육 사이트나 육아 관련 사이트에 연구 목적을 홍보하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하여 연구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측정 도구

측정할 내용은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첫째로 연구자가 기존 연구(Hertenstein, 2002; Weiss, 1992)를 중심으로, 신체접촉의 유형을 임의로 만들어 선택식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머리 쓰다듬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꼭 껴 안기, 살포시 안기, 흔들기, 찌르기, 잡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등의 12가지를 나열하여 엄마들로 하여금 자주 사용하는 유형을 2가지 이상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방식으로 질문하여 사용되는 접촉 유형을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다.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질문은 3개월 영아를 가진 엄마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6, 9, 12, 15, 18, 21, 23, 26, 29, 32, 36개월의 영아를 가진 엄마들에게 실시하였다.

둘째로,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를 잠재우는 방법을 3 가지 제시하여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안고 흔들어 재운다, 등을 긁으며, 전신을 마사지 해준다, 등이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준다. 이외에도 아기를 재우는 방법들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다.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개월, 8개월, 13개월의 영아를 가진 엄마들에게 실시하였다.

절 차

2003년 1월 15일부터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훈련받은 검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검사자 인력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은 주로 연구 대상자 표집 지역의 주요 대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검사자는 73명이었다.

결 과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질문은 3개월에서 36개월에 걸쳐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개월, 8개월, 1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유형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6개월, 9개월+12개월, 15개월+18개월, 21개월+23개월+26개월, 28개월+30개월, 32개월+36개월을 묶어서 나온 평균 측정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평균 개월 별로 4개월, 10개월, 16개월, 22개월, 28개월, 34개월의 영아를 가진 엄마들이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발달적 변화가 분석되었다. 6개월 간격으로의 나누어진 6개 집단이 신체접촉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변량분석을 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했던 접촉 유형 12가지와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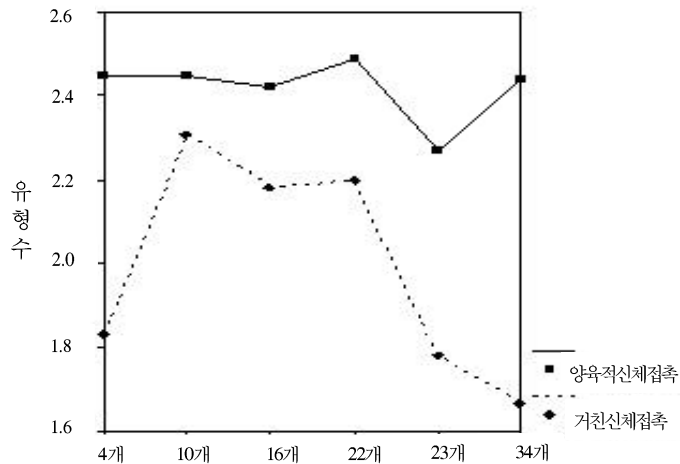


그림 1. 신체접촉 차원에서의 월령별 차이

마들이 기록한 신체접촉 유형 23가지를 합하여 한국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은 총 35가지였다. 이 중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된 유형 12가지를 정리하여 활동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두 가지 차원에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양육적 신체접촉(뽀뽀하기, 쓰다듬기, 안기, 마사지 해주기, 토닥토닥하기, 업기), (2) 거친 신체접촉(꼬집기, 간질이기, 찌르기, 흔들어 주기, 잡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여기서의 거친 신체접촉은 본문에서의 거칠고 학대적이며 돌발적인 신체접촉과는 어느정도 구분되어야 한다. 접촉하는 맥락에 따라 양육적인 것도 학대적인 접촉으로 영아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꼬집기라는 부정 정서를 유발시키는 신체접촉도 애정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였다.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을 중부지역으로, 영남과 호남을 남부 지역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신체접촉 차원에 따른 차이

양육적 신체접촉과 거친 신체접촉, 두가지 신체접촉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때 각 차원에서 사용한 유형의 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접촉 차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t=7.731, p<.001$), 거친 신체접촉 ($M=1.98, SD=1.99$)보다 양육적 신체접촉($M=2.41, SD=1.06$)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접촉 차원에서 월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육적 접촉차원에서는 월령간 차이가 없었으나 거친 접촉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F_{5,959}=2.853, p<.05$)<그림1>.

지역간 접촉 차원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지역의 어머니들은 거친 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사용하였다. 접촉 차원에서 지역과 월령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육적 신체접촉에서는 지역($F_{1,953}=3.06, p=.080$)과 월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F_{5,953}=1.32$). 그러나 월령과 지역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경향성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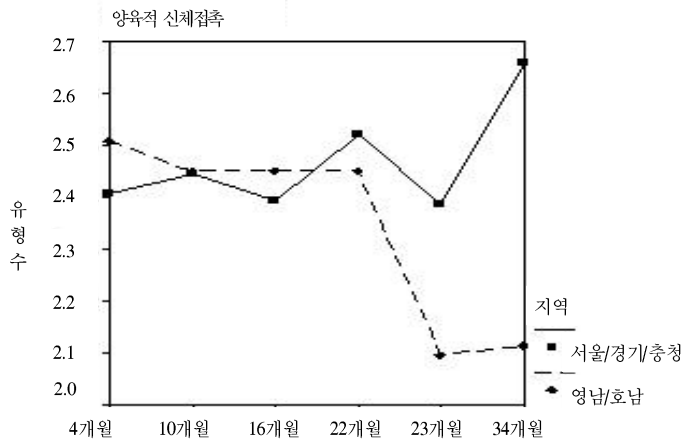


그림 2. 양육적 신체접촉에서의 월령 과 지역에 따른 차이

었다($F_{5,953}=2.10, p=.063$)<그림2>.

거친 신체 접촉에서는 월령간 차이가 있었으나($F_{5,953}=3.684, p<.01$), 지역간 차이는 없었다. 월령과 지역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그림3에서 보듯이 16개월과 22개월 사이에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F_{5,953}=3.452, p<.01$). 즉 이 시기에 영·호남지역 엄마들이 서울·경기·충청지역 엄마들보다 거친 신체

접촉을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이 했다.

신체접촉의 하위유형에서의 차이

각각 신체 접촉의 하위유형 6개에서 월령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양육적 신체 접촉 차원 중, 마사지에서 차이가 있었다($p<.001$). 거친 신체 접촉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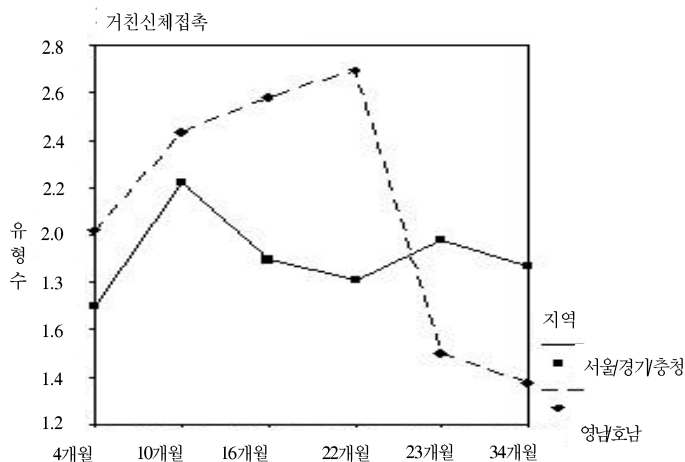


그림 3. 거친 신체접촉에서의 월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

표 1.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월령별 변화(%)

유형	개월	4개월	10개월	16개월	22개월	28개월	34개월	유의도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80.4	81.6	83.8	85.8	80.3	84.3	.716
	쓰다듬기: 볼쓰다듬기, 머리쓰다듬기	64.3	63.2	60.1	60.3	54.4	56.2	.366
	안기: 꼭안기, 살포시 안기	76.2	79.6	81.8	85.8	78.5	85.6	.183
	마사지***	21.0	14.5	8.1	7.1	4.4	4.6	.000
	토닥토닥하기	1.4	1.3	3.4	3.5	3.1	5.2	.360
	업기	1.4	4.6	4.7	6.4	6.1	7.8	.205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9.1	19.1	20.9	23.4	14.0	14.4	.011
	간질이기	43.4	55.9	46.6	47.5	44.3	43.1	.208
	찌르기***	9.1	18.4	25.0	27.0	14.9	15.0	.000
	흔들기*: 흔들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52.4	52.6	49.3	43.3	42.1	35.9	.017
	잡기	22.4	28.3	27.7	31.2	22.8	24.2	.407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46.9	56.6	48.6	47.5	39.9	34.0	.002

표 2.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지역 간 월령별 차이

유형	개월	4(%)	10(%)	16(%)	22(%)	28(%)	34(%)	total(%)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중부	79.8	77.8	83.7	84.8	80.7	91.2 **	82.8
		남부	81.4	87.1	83.9	87.1	79.6	74.2	82.0
	쓰다듬기: 볼 쓰다듬기, 머리쓰다듬기	중부	59.5	63.3	59.3	57.0	60.7 *	60.4	60.2
		남부	71.2	62.9	61.3	64.5	45.2	50.0	58.0
	안기: 꼭안기, 살포시 안기	중부	75.0	76.7	84.9	84.8	82.2	92.3 **	82.7
		남부	78.0	83.9	77.4	87.1	73.1	75.8	78.8
	마사지	중부	22.6	18.9	7.0	11.4 *	4.4	5.5	11.0 *
		남부	18.6	8.1	9.7	1.6	4.3	3.2	7.30
	토닥토닥하기	중부	1.2	2.2	1.2	3.8	2.2	5.5	2.70
		남부	1.7	0.0	6.5	3.2	4.3	4.8	3.50
	업기	중부	2.4	5.6	3.5	10.1	8.1	11.0	6.90 **
		남부	0.0	3.2	6.5	1.6	3.2	3.2	3.00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중부	7.1	17.8	16.3	16.5 *	14.1	13.2	14.2 *
		남부	11.9	21.0	27.4	32.3	14.0	16.1	20.0
	간질이기	중부	40.5	55.6	45.3	39.2 *	49.6 *	50.5 *	47.3
		남부	47.5	56.5	48.4	58.1	36.6	32.3	45.8
	찌르기	중부	4.8 *	16.7	19.8	22.8	17.0	17.6	16.5
		남부	15.3	21.0	32.3	32.3	11.8	11.3	20.0
	흔들기: 흔들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중부	51.2	50.0	44.2	36.7	48.1 *	38.5	29.2
		남부	54.2	56.5	56.5	51.6	33.3	32.3	30.5
	잡기	중부	20.2	26.7	20.9 *	26.6	23.7	27.5	24.2
		남부	25.4	30.6	37.1	37.1	21.5	19.4	28.0
	들어올렸다 내리기	중부	46.4	55.6	43.0	39.2 *	45.2 *	39.6	45.0
		남부	47.5	58.1	56.5	58.1	32.3	25.8	45.3

중, 꼬집기($p<.01$), 찌르기($p<.001$), 흔들어 주기($p<.05$), 들어올렸다 내리기($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1>. 이런 양상이 지역과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 중, 마사지($p<.05$)와 업기($p<.01$)에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남부지역의 엄마들보다 영아들에게 마사지와 업기를 더 많이 했다. 거친 신체접촉 차원으로 분류된 6가지 접촉 유형 중, 꼬집기($p<.05$)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중부지역의 엄마들보다 꼬집기를 더 많이 사용했다.

각 유형 안에서 지역간 월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뽀뽀하기는 3개월에서, 쓰다듬기는 28개월에서, 안아주는기는 34개월에서, 마사지 하기는 22개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은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거친 신체접촉 유형 중, 꼬집기는 22개월에서, 간질이기는 22개월, 28개월과 34개월에서, 찌르기는 4개월에서, 흔들기는 28개월에서, 잡기는 16개월에서, 들어올렸다 내리기는 22개월과 28개월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즉, 꼬집기는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22개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간질이기는 22개월경에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많이 하였으나, 28개월 이후부터는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찌르기는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사용하였으며, 흔들어 주기는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사용하였다. 잡기는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들어올렸다 내리기는 22개월경에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28개월경에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재우는 방식에서의 차이

특히 아기를 재우는 방식에서 많은 엄마들이 신체접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 재우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3개월, 8개월, 13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된 것이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A: 폐쇄형 질문)과 어머니가 자유로이 응답한 방법(B: 개방질문)을 19가지로 분리하였다.

폐쇄형 반응(A)에서는 안고 흔들어 주면서 재우는 방법은 월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다(3개월: 41.4%, 8개월: 25.9%, 13개월: 7.7%,

표 3. 아기 재우는 방법(A)에서의 월령별 지역차

잠재우는 방법	개월	3개월(%)		8개월(%)		13개월(%)		total(%)
		중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안고 흔들어 재운다		36.6	48.3	17.6	40.0	2.0	17.2	17.7
				*		*		**
등을 굽으며, 전신을 마사지 해준다		0.0	0.0	2.0	3.3	6.1	3.4	2.8
등이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준다		41.5	37.9	62.7	56.7	49.0	51.7	51.8
								48.9

표 4. 아기를 재우는 방법(B)에서의 월령별 지역차

잠 재우는 방법	3개월(%)		8개월(%)		13개월(%)		total(%)	
	중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젖, 우유를 물린다	4.9	13.8	23.5	16.7	36.7	37.9	22.7	22.7
노래를 불러준다	12.2	17.2	15.7	0.0	18.4	3.4	15.6	6.8
			*		*		*	
업어준다	9.8	17.2	21.6	23.3	20.4	20.7	17.7	20.5

$p<.001$), 엄마들은 영아가 어렸을 때 안고 흔들며 주면서 재우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등이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재우는 방법에서도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3개월: 40.0%, 8개월: 60.5%, 13개월: 50.0%, $p<.05$). 개월이 증가될수록 엄마들은 등이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영아를 재우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 간 차이를 보면 안고 흔들며 재우는 방법에서 남부 지역의 엄마들이 더 안고 흔들면서 아기를 재우며($p<.01$). 13개월에 비해 8개월($p<.01$)에, 영, 호남 지역의 엄마들이 아기를 재울 때 더 안고 흔들며 재웠다<표3>.

엄마들이 개방식으로 기록한 아기 재우는 방법(B)에서는 젖이나, 우유를 물리면서 재우는 방법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3개월: 8.6%, 8개월: 21.0%, 13개월: 37.2%, $p<.001$). 엄마들은 개월이 증가될수록 아기를 재울 때, 젖이나 우유만을 물리면서 재우는 경향이 증가되었다. 영아를 재울 때 업어주는 경향도 개월에 따라 증가되었어도 (12.9%, 22.2%, 2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지는 못했다. 아주 어려서나 또는 1년경이 지나면서 영아를 재울 때 엄마들은 노래를 불러 주기도 했으나(14.3%, 9.9%, 12.8%), 유의미한 통

계치는 얻지 못했다. 지역 간의 차이를 보면, 노래를 불러주는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아기를 재울 때 노래를 더 많이 불러주었다. 특히 월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8개월과 13개월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재우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p<.05$). 중부지역의 엄마들이(15.6%) 남부지역의 엄마들(6.8%)보다 8개월 이후부터는 노래를 더 많이 불러주면서 아기를 재웠다<표4>.

논 의

신체접촉은 초기 영아기의 사회적 경험의 토대로써 애착에 영향을 주며(Weiss et al, 2001), 이후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Hertenstein & Campos, 2001; Stack & Muir,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규모로 3-36개월 영아의 엄마를 1120명 무선표집하여 영아에게 사용한 신체접촉 유형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신체접촉 유형이 월령별로 어떻게 변화되며,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신체접촉 유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신체접촉 차원 간의 차이, 즉 양육적 대 거친 신체접촉에서

엄마들이 어떤 차원을 더 자주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엄마들은 자녀를 보살필 때, 거친 신체접촉 유형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안전하게 애착한 영아의 엄마들은 불안전 애착의 엄마들보다 더 애정적이며, 부드러운 신체접촉을 사용한다 (Leyendecker et al., 1997; Network 1997; O'Connor et al., 1992). 따라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안전애착에 필요한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에서는 발달적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발달에 따라 엄마들이 별 다른 변화 없이 양육적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일상에서 양육적 신체접촉을 많이 한다고 나온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친 신체접촉 유형에서는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행동의 강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친 신체접촉이 월령에 따라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간질이기, 꼬집기나 들어 올렸다 내리기 등의 거친 신체접촉은 어느 정도 나이 든 어린 유아나 영아에게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신체접촉 차원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즉 두 지역의 엄마들은 거친 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두 지역 엄마들이 사용한 양육적 접촉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에 상관 없이 두 지역의 엄마들은 일관되게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개

월-22개월까지는 두 지역간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28개월과 34개월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미시적·거시적인 생태학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생의 초기부터 엄마에 의해 사용된 접촉 차원에서의 차이는 그 자체가 의미로운 발견이 될 수 있다. 분명한 언급을 논할 수는 없어도 남부지역보다 중부지역에서 양육적 신체접촉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점들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심도 있는 주제로써 다루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거친 신체접촉에서 월령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두 지역의 엄마들이 영아의 월령에 따라, 거친 신체접촉을 변화있게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보면 남부지역에서는 4-22개월까지 거친 신체접촉의 사용이 증가되다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는 반면, 중부지역에서는 4-10개월까지 증가되다가 22개월까지 감소를 보이고, 28개월에 약간 증가하다가, 34개월에 다시 감소되었다. 16개월과 22개월 사이에서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사용되는 거친 신체접촉 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중부지역 엄마들이 사용하는 거친 신체접촉 수는 감소되는데 비해 남부지역 엄마들이 사용하는 거친 신체접촉 수는 증가되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심리학적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생후 1년경을 전후로 영아는 서서히 특정한(가령, 엄마)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상을 인식해 간다. 이런 시기에 양육적 신체접촉의 증가는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Ainsfeld et

al., 1990; Katz et al., 1992). 그러나 거친 신체 접촉의 증가는 영아에게 부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Hertenstein & Campos, 2001). 단순히 신체접촉 유형 자체만으로 애착과의 연관성을 논한다는 것이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거친 신체접촉의 증가는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예측하지 못한다. 양육적 신체접촉이 사용되는 한 제한적인 거친 신체접촉이 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Weiss et al., 2000).

따라서 남부지역 엄마들이 중부지역 엄마들보다 10개월 이후 22개월까지 거친 신체접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여러 측면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양육적 특징이 성장 후 사회성과의 연계성을 형성하는 여부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신체접촉의 하위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양육적 접촉 유형 중, 마사지에서만 발달적 변화를 보였다. 엄마들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마사지를 덜 해 주었다. 마사지는 신생아들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동물연구에서 나온 증거는 초기의 촉각적 경험은 뇌의 대뇌피질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 형태와 수(number)에 영향을 줄 수 있다(Greenough, 1990; Nudo et al., 1996). 따라서 어릴 때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것이 양육 현장에서 장려할 지침이 될 수 있다.

거친 신체접촉 유형 중, 꼬집기, 찌르기, 흔들어 주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등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가령, 꼬집기나 찌르기는 16개월과 22개월경에 증가하였다가 28개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도 16개월-22개월경은 영아들의 자기 개념이 형성되

는 시기로, 그들의 고집이나 반항이 증가되어지며, 이에 따라 영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엄마들은 꼬집기나 찌르기의 신체접촉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신체접촉 유형이 28개월경이 되면서 감소되는 것은 언어적으로 발달한 영아들을 간단한 대화로써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흔들기(흔들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와 들어올렸다 내리기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엄마들은 이런 신체접촉을 덜 사용하였다. 이는 영아들의 신체 발달과 더불어 인지 능력이 향상되면서 단순히 강도 있는 신체접촉으로만은 영아를 통제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신체가 성장하면서 흔들어 주는 접촉 방법이 엄마들의 힘을 쇠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유형별 경향이 지역과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남부지역의 엄마들보다 마사지와 업기를 더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마사지라는 접촉은 아기의 성장 발달에 유익하지만 여유로운 양육환경이 조성되는 가정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접촉 유형이다. 따라서 남부지역보다는 중부지역의 엄마들이 양육적 환경의 여유가 더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양육현장에서 신체접촉을 사용해 아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예가 아기를 재우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사용하여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엄마들은 아기가 어릴수록 안고 흔들면서 재웠다. 3개월경, 41%의 엄마들이 아기를 재울 때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

나, 개월이 증가할수록 안고 재우지 않았다. 이는 몇 분에서 몇 십분 간을 아기를 안고 흔들어 주는 것이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이런 방법들은 가사 일에 힘든 엄마들에게는 매우 피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엄마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기의 등이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재우는 방법으로 신체접촉 하였다.

중부와 남부 지역 간 아기를 잠재우는 방법에서의 차이를 보면, 남부지역의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흔들어 재우는 방법을 더 사용했다. 이에 반해 중부지역의 엄마들은 남부지역의 엄마들보다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가를 재웠다. 이런 발견점들도 양육현장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 엄마들이 아기를 재우는 방법에 있어, 요즈음 젊은 엄마들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재우면서 아기와 신체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기를 안고 흔들어 주는 것보다, 젖이나 우유를 주면서 재우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는 합리적인 양육 태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기가 발달할수록 젖병을 들고 먹을 수 있는 운동 발달 능력이 생기는 것 외에 아기의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안고 흔들면서 재우는 것은 엄마에게 힘이 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우는 방법에서 지역 간 차이는 보면, 남부지역의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흔들어 재웠다. 중부지역의 엄마들은 아기를 재울 때 노래를 더 많이 불러 주었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아기를 재울 때, 엄마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어 쉽게 잠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는 신체

접촉이 아기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0-3세의 한국 영아를 가진 엄마들이 양육현장에서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그러한 신체접촉이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신체접촉은 영아발달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함을 지닌다(김수정, 곽금주, 2003, 참조).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엄마들이 어떤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아기의 월령과 그리고 지역 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한 기술은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설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할 신체접촉에 대한 문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영아기 신체접촉 유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나, 신체접촉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발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 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아울러 접촉 상황과 접촉 유형간 기능적 함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돌보는 사람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을 가장 강도 있게 하는 가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이런 관계를 밝힘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신체접촉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둘째로, 이런 기능적 함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질문지 형태가 아닌 체계화된 질문지 형태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런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신체접촉 질문지를 척도화시키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아마도 이런 척도화된 질문지를 개발함으로써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신체접촉 유형이 이후 애착 유형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 연구되어야 한다. 애착은 사회적 관계에 근본이 되는 토대이므로 애착 특성은 이후 사회적 부적응과도 분명히 연계된다. 아울러 신체접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영아들이 이후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연구 등을 통해(Field, 2003) 돌보는 이의 신체접촉에 대한 빈도와 접촉 유형 등(양육적 신체접촉/ 거친 신체접촉)이 이후 사회적 부적응과 어떤 연계를 갖는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연구 점들이 통합적으로 연구되면서 신체접촉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현장에서 장려될 신체접촉 유형과 제지되어야 될 접촉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신체접촉이라는 새로운 양육 차원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수정, 곽금주 (2003). 의사전달적 기능으로서의

- 영아기 신체접촉. *인간발달연구* 10(2), 인쇄중.
- Anisfeld E., Casper V., Nozyce M., Cunningham N. (1990). Does infant carrying promote attachment?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increased physical contact o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 1617-1627.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azelton, T. B. (1990). Touch as a touch stone: Summary of the round table.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Clinical Infant Reports, No. 4, pp. 561-566). Madison, WI: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hristensson K., Cabrera T., Christensson E., Uvnas-Moberg K., Winberg J. (1995). Separation distress call in the human neonate in the absence of maternal body contact. *Acta Paediatrica*, 84(5), 468-473.
- Douglas, J. (1978). Pioneering a non-western psychology. *Science News*, 113, 154-158
- Ellsworth, C. P., Muir, D. W., & Hains, S. M. H. (1993). Social competence and person-object differentiation: An analysis of the still-face e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3-73.
- Field, T. (1999). Preschoolers in America are touched less and more aggressive than preschoolers in Fra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51, 11-17.
- Field, T. M. (1998). Touch therapy effects 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779-797.
- Field, T. M. (2003). Touch.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Franco, F., Fogel, A., Messinger, D. S., & Frazier, C. A. (1996). Cultural differences in physical contact between Hispanic and Anglo mother-infant dyad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Early*

- Development and Parenting*, 5, 119-127.
- Green A. (1998).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Wilson J, Raphael B (Eds.), Plenum Press: New York: 577-592.
- Greenough, W. T. (1990). Brain storage of information from cutaneous and other modalities in development and adulthood.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Round Table X* (pp.97-126).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ossman, K., Grossman, K.E., Gottfried, S.,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Hertenstein, M. J. (2002). Touch: Its Communicative functions in infancy, *Human Development*, 45, 70-94.
- Hertenstein, M. J., & Campo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via maternal touch. *Infancy*.
- Ironson, G., Field, T.M., Scafidi, F., hashimoto, M., Kumar, A., Goncalves, A., Burman, I., Tetenman, C., Patarca, R. & Fletcher, M.A.(1996). Massage therapy is associated with enhancement of the immune system's cytotoxic capacity. *International of Neuroscience*, 84, 205-217.
- Isabella, R. A., Belsky, J., & von Eye, A. (1989).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al synchrony during the infant's first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2-21.
- Kaitz M., Lapidot P., Bronner R., Eidelman A. (1992). Mothers can recognize their infants by touc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35-39.
- Kaufman J. 1991. Depressive disorders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2), 257-265.
- Kawakami, K., Takai-Kawakami, K., & Kanaya, Y.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Japanese and American mother-infant interactions.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Orient*, 37, 18-29.
- Kaye, K., & Fogel, A. (1980). The temporal structur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Development Psychology*, 16, 454-464.
- Konner, M.J.(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 B. Konner, M.J.(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 B. Lee & I. DeVore(Eds.), *Kalahari hunter-gatherers: Studies of the Kung San and their*
- Kraemer, G.w. (1985). Effects of differences in early social experience on primate neurobiological-behavior development. In Reite, M., and Field, T. (Eds.), *Psychobiology of attachment and separation*, 135-157. Orlando, FL : Academic Press.
- Kuhn, C., Schanberg, S., Field, T., Symanski, R., Zimmerman, E., Scafidi, F. & Roberts, J. (1991). Tactile/kinesthetic stimulation effects on sympathetic and adrenocortical function in preterm infants. *Journal of Pediatrics*, 119, 434-440.
- Landau, R. (1989). Affect and attachment: Kissing, hugging, and patting as attachment behavior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50-69.
- LePage, D. E. (1998). *Four- and 7-month-old infants' sensitivities to contingency during face-to-face social intera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Canada.
- Leyendecker, B., Lamb, M. E., Fracasso, M. P., & Scholmerich, A. (1997). Playful interaction and

- the antecedents of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of Central American and Euroerican mothers and infants. *Merrill-Palmer Quarterly*, 43, 24-47.
- Main M., Stattman J. (1981). Infant response to rejection of physical contact by the mother: Aggression, avoidance and confli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ology*, 20, 292-307.
- Mead, M. (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William Morrow, 40-41.
-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3rd ed.), New York: Harper & Row.
- Myslivec J. (1991). Developmental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behavior and nervous functions. *Physiological Research* 44, 169-181.
- Network, N. E. C. C. R.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udo R., Milliken G., Jenkins W., Merzenich M. (1996). Use-dependent alterations of movement representations in primary motor cortex of adult squirrel monkeys. *Journal of Neuroscience*, 16, 785-807.
- O'Conner, M. J., & Siegman, M. D., & Kasari, C. (1992). Attachment behavior of infants exposed prenatally to alcohol: mediating effects of infant affec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4, 243-256.
- Polan H., Ward M. (1994). Role of the mother's touch in failure to thriv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Adolescent Psychiatry*, 33(8), 1098-1105.
- Prescott, J. W., and Wallace, D.(1976). Developmental Sociobiology and the origins of aggressive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July 18-25.
- Reissland, N., & Burghart, R. (1987). The role of massage in South Asia: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231-239.
- Roopnarine, J. L., Talukder, E., Jain, D., Joshi, P., & Srivastav, P. (1990). Characteristics of holding, patterns of play, and social behaviors between parents and infants in New Delhi, India.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67-673.
- Rubin, R. (1963). Maternal touch. *Nursing Outlook*, 11, 328-331.
- Schore A. (1998). *Early Trauma and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Brain*. Paper Presented at the Hincks-Dellcrest Institute Conference on Trauma, Toronto, Canada.
- Stack, D. M. (2001). The salience of touch and physical contact during infancy: Unraveling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somaesthetic sense. In A. Fogel & G. Brem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London: Blackwell.
- Stack, D. M., & LePage, D. E. (1996). Infants' sensitivity to manipulations of maternal touch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5, 41-55.
- Stack, D. M., & Muir, D. W. (1990). Tactile stimulation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rchange: New interpretations for the still-face effec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31-145.
- Stack, D. M., & Muir, D. W. (1992). Adult tactile stimulation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modulates 5-month-olds' affect and attention. *Child Development*, 63, 1509-1525.
- Stack, D. M., LePage, D. L., Hains, S., & Muir, D. W. (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Manuscript under revision.
- Straus M., Gelles R.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Transition: New Brunswick, NJ.
- Toney, L. (1983). The effects of holding the newborn at delivery on paternal bonding. *Nursing Research*, 32, 16-19.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Tronick, E. Z., Als, H., Adamson, L., Wise, S., & Brazelton, T. B. (1978). The infant's response to entrapment between contradictory messages in face-to-face interac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7, 1-13.
- Tronick, E. Z., Thomas, R. B., & Daltabuit, M. (1994). The Quechua manta pouch: A caretaking practice for buffering the Peruvian infant against the multiple stressors of high altitude. *Child Development*, 65, 1005-1013.
- Turkewitz G., Kenny P. (1982). Limitations on input as a basis for neural organization and perceptual development: A preliminary theoretical statement. *Developmental Psychobiology*, 15, 357-368.
- Van der Kolk, B. A., & Fisler, R. E. (199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8, 145-168
- Van IJs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J.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Vondra, J. I., Shaw, D. S., & Kevenides, M. C. (1995). Predicting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multiple, contemporaneous measures of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61, 415-425.
- Walsh A. (1991). *The Science of Love: Understanding Love and Its Effects on Mind and Body.* Prometheus Books: Buffalo, NY.
- Waters, E., Kondo-Ikemura, K., Posada, G., & Richters, J. E. (1990). Learning to love: mechanisms and milestones. In M. Gunner & L. A. Sroufe (Eds.), *Self-Processes and Development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3, pp. 217-255). Hillsdale, NJ: Erlbaum.
- Weinberg, M. K. (1994). *Different forms of touch in Tronick's Face-to-Face Still-Face Paradigm.* Manuscript in preparation.
- Weiss, S. J. (1992). Psychophysiologic and behavioral effects of tactile stimulation on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5, 93-101.
- Weiss, S. J., Wilson, O., Hertenstein, M.J., &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 Weiss, S. J., Wilson, P., St. John Seed, M., & Paul, S. M. (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The changes of touch patterns from the Korean mothers during infancy

Suchung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kyoung Chang - So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Hyunran S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ee - og Sim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is to survey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touch patterns from mothers during infancy and the differences of regions. In addition, it is to be investigated touch patterns that the mothers used when she tried to get their babies to sleep. Participants were 1120 mothers of babies aged from 3 to 36 months old. Based on a analysis of variance, it was found that mothers used more nurturing touch than harsh touch. The mothers of the middle regions and the south regions used more nurturing touch than harsh touch. The mothers of the middle regions used more nurturing touch than those of the south regions. The harsh touch were similarly used in both regions. There were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massage, pinch, poke, shake, lift. The mothers of middle regions used more massage and those of south regions used more pinch. The mothers used less the rocking with holding the baby with age. They made the babies sleep through the feeding or, the patting on the shoulder and back of babies with age.

Keywords: touch, infancy, nurturing touch, harsh touch, attachment